

第48回 發明教室

2月 13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2月 13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48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韓國特殊時計開發公社 崔萬一 회…○
- …장과 個人發明人 姜明秀씨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朴鎔碩 記> ○

生活속의 發明 12年

個人發明人 姜 明 秀 씨

12年間 生活속의 작은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發明으로 연결하여 中小企業設立을 서두르고 있는 個人發明人 姜明秀씨. 姜씨가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77年 4月. 당시 완구 무역업체 하청업을 하던 姜씨는 야구광이었다.

姜씨의 첫 發明 「차광안경을 설한 차광모」는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생각해냈다.

姜씨가 「차광안경을 설한 차광모」를 생각해낸 것은 정확히 77年 4月, 장시간 야구경기 관람시 선그라스로 인한 콧등의 痛症으로 인하여, 가볍고 痛症없이 눈을 保護하는 商品이 필요하다고 느껴 眼鏡테를 이용한 1回用 태양모를 發明하기로 決心했다.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發明 같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는 姜씨의 설명.

姜씨에 따르면 지난 85年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 이 發明商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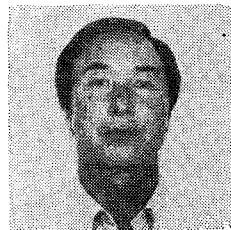
出品하여 美國 바이어와 1年間 獨占契約이 締結되었으나, 안경재로 셀로판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자에 걸착한후 습기로 인하여 셀로판지가 수축되어 안경 表面이 매끄럽지 못해 契約이 취소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습기가 있을때 수축되는 단점이 있는 기존의 안경재로 (셀로판지)대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안경재료로 컬러필름을 美國에서 輸入, 오늘의 차광모를 誕生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誕生된 차광모는 우선 사용하기가 간편할 뿐만아니라 장시간 쓰고 있더라도 콧등의 痛症이 없고, 강한 적사광선으로 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가격이 저렴(개당 3백원 내외)하고 1回用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운동경기장·레수욕장·유원지·고궁등 야외에서 차광모로 사용함과 동시에 企業의 廣告및 販促용으로 더없는 人氣를 누리고



<姜 明 秀 氏>

있다는 姜씨의 설명. 이 차광모는 최근 美國 販促廣告會社와 輸出契約을 締結했으며, 국내에서는 어린 이대공원·서울대공원·잠실야구장 등에서 인기리에 販賣되고 있다.

姜씨는 이 차광모에 올림픽 기간 중 韓國의 發展象과 固有의 風俗등을 문양으로 새겨 對外弘報용으로 販賣할 計劃을 마련하고, 요즘 그 推進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姜씨는 이 차광모외에도 11件的 工業所有權을 가지고 있으며, 出願중인 工業所有權도 3件이나 된다. <吳>